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느 10:1-39)

Those who Affixed their Seals to a Covenant (Neh 10:1-39)

느헤미야 10장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여 인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인봉에 서약을 하고 다음에 시드기아가 그리고 2-8절까지 21명의 제사장들이, 9-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인 대표들이, 14-27절까지는 지도자 44명이 서약을 하여 총 84명이 서약에 인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노철 목사

In Nehemiah 10, the people decided not to depart from God's word, make a binding agreement, put it in writing, and affixed their seals to it. First, it was Nehemiah who took the vow and affixed his seal to the agreement, and then, consecutively, 21 priests did the same in vv. 2-8, 17 Levite representatives in vv. 9-13, and 44 leaders in vv. 14-27.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ho did this was 84.

The contents for the Israel people to thoroughly observe and obey God's word are as follows.

1. 통혼 금지에 대한 결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3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에 통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통혼은 결혼 자체의 문제보다 이방신과 문화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1. The resolve for prohibition of intermarriage

“We promise not to give our daughters in marriage to the peoples around us or take their daughters for our sons (v. 30).

The fact that the Israel people, at that time, decided not to intermarry with neighboring people is the expression of their will to obey God only. However, owing to the mixture of foreign gods and culture, the God-first-faith would falter, rather than the intermarriage itself.

2. 철저한 안식일 준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2. A thorough observance of the Sabbath

The fact that God created all things in the world for six days and rested from all His work at the seventh day means that His creation was complete. Therefore, He gave us a command to observe the Sabbath and to be holy.

Now we don't observe the Sabbath but the Lord's Day, Sunday. The first day after the Sabbath, Jesus rose from the death and established a new order of creation.

3. 재정적인 헌신에 대한 결심

32-39절에는 '하나님의 전'과 '십일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 십일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관리가 엉망이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체험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십일조 생활이었습니다(37절).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3. The resolve for financial dedication

In vv. 32-39, the words of 'the house of our God', and 'the tithes' appear several times. In the Old Testament era, the house of our God was the core subject of God's work. However, in the time of Nehemiah, although the Israelite people built a sanctuary, they neglected tithes due to the difficulties of living.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sanctuary didn't work well. Finally, it happened that the Levites and priests had to leave their sanctuary, because they had not received any economical support.

Now, upon experiencing a revival through God's word, they had a life of tithes placing His work first and foremost before them(37).

The famous English preacher, Rev. Campbell Morgan left a message as follows: “The dedication behind offerings is spiritual. Our material offerings are just the expression of spiritual dedication. The offerings without dedication cannot exist, and the dedication that cannot be expressed by offerings is hypocris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물질적 헌신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들을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은혜와 복은 우리 모두에게 넘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If we devote our whole life to our belief in God, and if we divinely expect to see the blaze of revival rise through all of our Church's work, then God will see the desires of our hearts, and His wonderful grace will fall like a waterfall to us.

Through our beautiful dedication toward God, I sincerely hope that all the glory will return to God, and all the grace and blessings overflow for us.

제 4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목회자신학세미나 : 9월5일(월)~11월7일(월)까지 10주간

열린프로그램 : 9월5일(월)~11월13일(주)까지 10주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와 목회"를 주제로 9월5일(월)부터 제4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개강된다. 11월7일(월)까지 10주간 진행되는 세미나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1교시(2:00-3:30)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2장-50장)를 하고, 2교시(3:50-5:20)는 주제에 따라 박노철

목사 외 7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내일(9월5일) 오전11시 창세기반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2011 사랑의 바자

9월29일(목)-30(금), 서울교회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1 사랑의 바자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 교회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힘쓴다.

또한 바자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A+캠페인(웃장비우기, 사랑의 온도계, 1%나눔운동, 10%절제운동)과 온라인 바자물을 통한 사랑의 우물과기 운동을 통하여 9월 한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한다.

- 다음은 온라인 바자물 특선상품 내역이다.
- 랜드로버 자전거 : MTB/미니벨로/Kid Bikes 등 5종류 국내쇼핑몰 최저가격
 - Coffea Coffee : 국내 최고의 바리스타가 직수입 블렌딩한 원두커피와 산지별 단종원두
 - 푸르메 : 순수 자연의 선물기능성 혼합잡곡
 - 스마트폰 : 최신 스마트폰 무료 특판/ 초기부담금없음, 요금제 자유
 - 와이셔츠 : 기라로쉬(Guyaroche) 드레스셔츠
 - 글라스락 : 내열강화유리 밀폐보관용기
 - 순면커버 본 : (FDA등록)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 본
 - 황토속옷 : 여성용 속옷일체 요실금팬티 텐셀 남내복 등
 - 효도상품 : 장뇌산삼과 한과와 블루베리

2011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6일(주일) / 본선 : 10월 21일(금) 오후 7시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갖는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성경암송 본문은 '로마서11-16장'이며 교육1-2국, 교육3-5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부서별 예선'을 거쳐 '본선'을 진행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 성경으로 한다.

예선은 10월 16일(주일)에 부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10월 21일(금) 오후 7시 602, 603, 609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암송대회 진행은 3개조로 나누어서 본선진행하며,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 시상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1-2국- 김광신 장로, 홍성주 장로, 박진아 목사, 교육3-5국- 김대호 장로, 박두호 장로, 박광일 목사, 영어 암송- 오광환 장로,

스티븐 마티노리치 목사, 황광 목사가 각각 수고한다.

발표는 10월 23일(주) 순례자에 하며 당일 오후 찬양예배 시 시상하며 암송도 하게 된다.

심사는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확도(70) : 전체 성경구절을 완전히 암송(한번수정허용)하는 경우 70점, 2회 수정시부터는 1회수정시마다 1점 감점, 틀리면 2점 감점, 빼먹는 경우는 분량 따라 감점한다. 태도(20) : 자세는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아야 하며, 말씀에 따른 몸짓이 성숙화되어 단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모습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 반응도(10)는 회중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호응은 어떤가에 따라 평가한다(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8]

(문 16) 왜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전의 족보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홍수 때 멸망당했다면 그날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에 의해 동일한 혈족이 퍼져 나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친척 관계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인종들은 홍수로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창 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의 긴 족보는 노아의 출생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홍수 이전의 족보가 들어있는 것(눅 3:36-38)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더욱이 아담의 아들 셋과 같은 경건한 자와 그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같은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 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통해 구원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문 17) 창6:2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 씀인가요?

(답)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창 6:2)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bene elohim)이라는 말은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신자들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이 말이 천사를 가리킨 성경구절로는 욥1:6, 2:1, 38:7, 시29:1, 89:6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킨 성경구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신14:1, 32:5, 시73:15, 호1:10 특히 창6:2 말씀 등이 그것입니다.

창6:2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자손 즉 셋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히1:14) 고로 영적 존재가 세상의 여인들과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용사들과 고대의 명사들을 낳았고 그들은 네피림이라 했는데(창6:4) 그들이 천사를 부모로 가졌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나이나 골리앗과 같은 초월적 힘을 가졌던 이들도 모두 사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창6:1-2, 4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과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을 말하며 이들이 결혼하여 얻은 자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들과 결혼함으로써 범죄한 열매를 맺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창6:3)함으로 부패한 인간 즉 죄악된 인간이 되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땅 위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시기 되었던 것입니다.(창6:5-6) 이것은 인간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한 것입니다.그 결과 홍수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없을 뿐 만아니라 사탄의 명을 받은 타락한 천사라면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것에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경건한 여인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란 천사일 수 없고 전장에 나온 셋의 후예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

종교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가 지난 8월 27일(토)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이종윤 목사가 2011년 1월 아시아 칼빈학회에 참석 후 한국신학계 전체를 망라하는 모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3월 발기 총회를 가지므로 이날 한국 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루터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 웨슬리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한국 장로교신학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7개 신학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사업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까지 6년간 학술 연구, 종교개혁 책자 번역, 강연회 등 6대 주요 사업을 진행하여 기독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유산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신앙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 할 것과 구약의 예언자직과 신약의 사도 직분을 바르게 실현함으로 성경



마틴루터의 95개 조항의 문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발대식에 참석한 교계지도자들

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제2차 종교개혁운동의 횃불을 올릴 것,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투철한 연합정신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한 몸을 이루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과 세계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신의 언약 선포'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의 유산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교회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천적인 문제들을 노출함과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직시하며,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 그리고 성경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엄중한 시대적 요청 앞에 서있다"라고 밝혔다.

정리 : 허숙 권사 (편집부)

4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을 개강하며

점진적 경건 훈련

황광목사

서울교회가 세워지면서 함께 시작된 목회자신학 세미나가 이제 20번째 40학기를 맞이하면서 9월 5일(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민족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온 우리 서울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섬기지도 강산이 두 번 바뀐 20년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영적회복과 갱신을 위하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서울교회로 향하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목회자님들과 한주간 주일봉사와 주일사역에 피곤도 하시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서울교회 섬김위원들을 빌 때마다 큰 감동의 물결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진행되는 목회자신학세미나가 40학기를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서울교회를 통하여 전국으로 메아리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이 이번 주 9월5일(월) 개강하여 11월 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됩니다. "육체의 연단(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2장 7-8절) 이처럼 말씀을 통한 경건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며 범사가 유익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경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드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서울교회가 준비한 이 경건의 훈련의 장인 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에 서울교회 성도님과 이웃주민들을 초대합니다. 이웃주민들에게 권하여 주시고 서울교회 성도들은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전국시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교미가책약교



2011년 상반기 목회자세미나 강의 전경

캄보디아 우물파기 2호를 기대하며

최형열집사 (2교구 간사)

사랑의 밤(粟)이 어디 있지?



"일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댓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올 가을엔 무슨 일을 해서 성공할까? 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밤나무 단지에서 2교구 식구들과 함께 <밤 줍기>행사를 합니다. 이는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일일봉사를 하는 것이며, 당일 참가자들은 3kg의 밤 1그물을 1만원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운 밤들은 현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우리교회 바자행사에 사용되게 됩니다.

당일 교통편과 점심 식사는 제공해 드리며, 간편 복장을 하시고 9월 22일(목)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아진 자금은 <캄보디아 우물파기 제2호>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밤(粟)이 사랑의 밤(粟)이요 기쁨의 밤(粟)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시고 체험하시어 농촌도 돕고, 사랑의 바자도 알차고, 자신에게는 믿음의 성공으로 1석 3조의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편지왔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여름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감동과 조명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피아노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일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집행해 주신 박노철 목사님과 교회 앞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니 도우쉬에 대해 나누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피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가 드디어 예니 도우쉬에 왔습니다. 하산 지도자와 함께 몇 분의 성도들이 동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피아노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길 간구하면서 서머나의 한 모퉁이에서

선교사 전 광혜 올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시온 찬양대(부장:신용식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국립합창단 정반주자로 활동하는 백경화집사가 지휘하는 시온찬양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테마로 하여 "Gloria[영광]R.A.Bass 곡/백경화역", "주기도(B.J.Smith곡)", "주께서 통치하시리라(M.Cox)"의 세곡을 드리며, 오르가니스트 김진형성도, 피아니스트 서유진성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이신 박광서 집사(할렐루야찬양대 팀파니스트)와 김형권, 김동규성도의 타악기 협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9월 4일(주) 초대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5일(월) 서울장신대 대학원 강의를 한다. (매주 월요일 학기중 강의한다), 8일(목) 베데스다 생명재단 발족식에 참여한다.
- 취임 : 주일 2부 예배의 팀파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박광서 집사는 9월1일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에 취임
- 특녀 : 12교구 김동욱 성도(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 장남) 이수경 성도 12교구 김희상성도 신경미 집사
- 이사 : 12교구 최정인 집사 객선자 권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0 한보라마을 휴먼시아아파트 610동 2501호 12교구 신봉하 집사 전숙향 집사 용인시 기흥구 호갈동 632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203동 1302호

■ 주간식당 봉사 : 리브가전대회(9.4) 제1스데반회(9.11)

■ 금주의 식사 : 고 최완 권사 유가족 일동 (김승환 집사, 장은정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편지왔어요

손길이 필요합니다

유수진 성도 (청년1부)

살롬!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한국의 여름도 이제 접어들고 서서히 가을 준비를 하겠네요. 아름다운 한국의 단풍이 생각납니다.

단풍은 없지만, 1년 내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아미(AMI) 음악학교에서 단기(자비랑)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영어가 가능하고 컴퓨터의 기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사무 행정), 성악, 피아노(기본적인 렛슨과 성악 반주), 화성학 등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실 분들이 내년 1월 학기부터 시급히 필요합니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이나 그 이상도 좋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콘서트에서 찬양하는 아미 학생들

섬기시던 단기선교사 두 분이 지난 학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저와 다른 자매도 이번 학기를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기에, 내년부턴 사무 행정과 교사가 한 명씩 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 분들이 20명 이상

의 학생을 상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도해보시고,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에 일꾼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들은 아미 음악학교 디렉터이신 이광수 선교사님께 문의해주세요. (sorahan1@gmail.com)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카리나 연주단 모집



오카리나 연주단 창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개발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며 찬양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도는 오영숙 권사가 하며, 모집인원 30명 내외로 하고, 연습시간 매주 1-2시간, 연습실은 추후 교회에서 지정하며 신청은 사무국에 하면 된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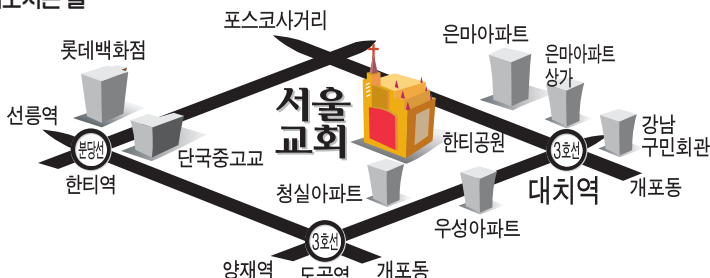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도록
2.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3. 사랑의 바자가 잘 준비되도록 도우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사랑과 기쁨의 열매 풍성한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